



포용적 복지의 개념과 철학적 함의

김미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개념이란 의미 있는 생각의 최소 단위로서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관념이나 지식이므로, 포용적 복지의 개념도 ‘포용’과 ‘복지’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관념이나 지식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일반적인 관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포용의 어원적 함의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이다. 포용의 ‘포(包)’는 ‘勺(사람이 몸을 웅크린 상태) + 巳(뱀 혹은 배 속의 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몸을 웅크려 배 속의 아기를 보호하는 어미의 모습을 뜻한다. 그리고 ‘용(容)’은 ‘宀(갓머리) + 谷(골짜기)’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큰 집이나 깊은 굴에 많은 물건을 담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어원을 바탕으로 성경룡 외(2019)의 연구에서는 “포용에는 ‘그릇 안에 놓다, 용납하다, 수용하다, 용서하다’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릇 안에 놓다’가 ‘용서하다’로 이어지는 맥락을 이들은 “최고 수준의 포용은 이질성을 끌어안아 대결하는 쌍방의 주장을 ‘포함’하고(include) 더 우월한 대안으로 모두의 주장을 ‘초월함으로써(transcend) 진정한 화해와 역동적 혁신을 이끌어 내는 힘이고, 사회 평화와 공동 번영의 원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포용은 ‘열 손가락 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는 우리 속담과 맥을 같이한다. 사실 부모는 잘난 자식과 못난 자식을 구분하여 못난 자식을 내치지 않고, 바다는 강물을 차별하지 않는다. 또한 포용은 ‘해와 달은 천지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비취 준다’는 묵가의 겸조(兼照) 사상으로 그 함의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포용의

함의에는 이질성과 다양성까지도 내포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구의 학문에서 포용적 복지(inclusive welfare)라는 용어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 비하여 자주 사용되지 않았다. 과묵하여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추측건대, 포용의 의미에 포용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가부장적인 개념이 스며들어 있다는 생각도 해 본다. 이는 청와대 참모들의 근무처가 여민관(與民館)에서 위민관(爲民館)으로 이명박 정부 때 변경된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여민관으로 바뀐 맥락과 유사할 수 있다. ‘위민’은 ‘민을 위한다’는 것으로 좋은 의미이다. 그러나 주체와 객체가 분리된 개념이다. 이를 굳이 맹자의 여민동락(與民同樂)에서 따온 ‘여민(민과 더불어)’으로 바꾼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지 않고 ‘함께 기쁨을 누리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좌우간 포용적 복지가 한 정부의 복지 철학으로 등장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이다. 정부의 복지 철학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로부터 시작되나, 멀리는 공자의 ‘바른 이름(正名)’과도 연결된다.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는 제자 자로의 질문에 공자는 정명(正名)이라고 대답하였다(論語, 子路). 이는 명분에 걸맞은 각 주체의 역할과 행위가 실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나쁜 이름(惡名)은 명분에 부합하는 이름을 갖지 않은 것(無名)보다 못하여 행위의 주체들을 혼란

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정부’ 이후 각 정부는 정명(正名), 곧 복지 철학을 제시한 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행하였다.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 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각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고자 하였던 “정명(正名)은 곧 하위 복지정책 수행의 ‘나침반’이자 ‘등대’ 기능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김성아, 2017, p. 3).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사 등에서 현 정부의 복지를 ‘포용적 복지’라고 규정한 바 있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사에서 포용국가를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경제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개인이 자신의 역할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토대로 포용적 복지의 개념을 정의하면, ‘경제성장의 과실이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 누리는 상태’가 될 수 있다. ‘어느 계층도 소외됨이 없이’라는 문구에는 보편주의, 사회통합, 분배정의, 공생 등의 철학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반은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이다. 결국 ‘사람 중심’은 포용적 복지의 이론적 토대이자 철학적 지향점이기도 하다. ㉞

참고문헌

김미곤, 여유진, 정해식, 김성아. (2017). 포용적 복지의 철학과 정책방향.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경룡 등. (2019).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발간. p. 7.